

# 아직 끝나지 않는 결핵

신좌섭(의사, 한국의학사)

## 1. 산업화와 결핵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로부터 볼 때 결핵의 역사는 기원전 4천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류 역사상 결핵이 가장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이다. 산업혁명 초기의 소위 '흑연지대(黑煙地帶, Black Country)'는 결핵과 성병, 그리고 티푸스 등 역병의 온상이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산업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도시로 밀려든 여공들의 처참한 삶을 고발한 호소이(細井和喜藏)의 르뽀 '여공애사(女工哀史)'(1925년)가 '공장'으로 가더니 유명같이 창백한 물결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공들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그려내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10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여공들의 이농에서 귀향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일본 자본주의가 한편으로는 농촌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탐식(貪

食)하여 원시적 축적을 이루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병든 노동력을 다시 농촌에 폐기하여 농촌을 결핵 만연의 장소로 만드는 전을할 만한 사회현상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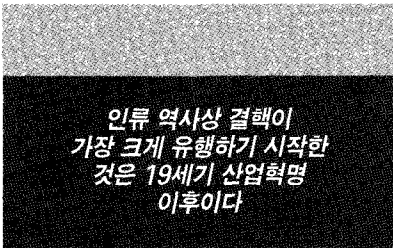
우리 나라 역시 1930년대의 통계를 보면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률이 50%를 웃돌고 있었다.

1942년 경성제대 조사반이 보고한 {토막민의 생활 위생}에 등장하는 그림은 일제하 도시빈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조사에서 토막민

들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 55.5%의 양성률을 보였다.

## 2. 근대 결핵의 이미지

대자연 속에서 검게 그을리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태양과 신선한 바람으로부터 차단된 공장과 빈민굴로 밀어 넣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창백의 미학'과 식민지적 허무주의의 사회



분위기는 결핵환자의 이미지에 '비극적 아름다움'을 새겨 넣었다

김유정, 이상, 나도향, 나운규 등 천재적 예술가들이 결핵으로 요절한 것도 이 같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의사이자 미술감정가인 필립 샌드블럼의 '창조성과 질병 (Creativity and Disease)'에 의하면 결핵의 미열은 환자의 연상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공상적이고 마치 꿈 같은 생각을 촉발하여 작가의 천재성에 기여한다.

한편 국가적으로 볼 때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2-30대에 주로 만연하는 결핵은 박멸의 대상인 망국병(亡國病)이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의 추정에 의하면 조선에는 약 40만의 결핵환자가 있었고 그 중 4만 명이 매년 결핵으로 사망하였다. 막대한 노동력과 전투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총독부는 결핵예방협회를 조직하고 전국 각지에 결핵요양소를 증설하였으며 한편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패망 3개월 전인 1945년 5월에 발간된 '조선체력령개설' (재단법인 결핵

예방회 조선지방본부 발행)이라는 책자는 서문에서 본 법령의 취지를 '병력과 노동력 확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요 관리대상인 질병은 결핵, 화류병, 정신병과 나병이었다. 당시 일제가 결핵과 국력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여기서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결핵 등에 대한 관리의 강압적인 경찰력과 체력관리와사를 중심으로 전개될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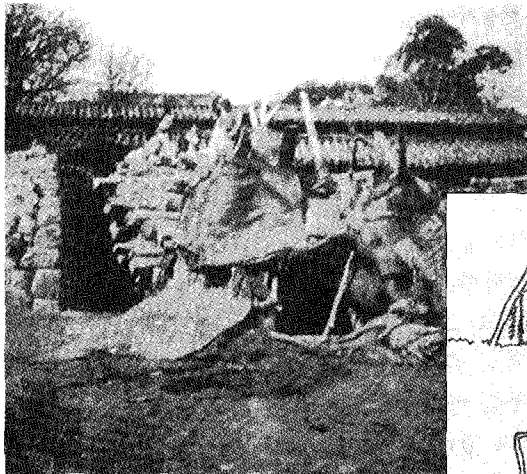
한편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우생학적인 견지에서 결핵은 유전병으로 파악되었다. 1918년 미국에서 발간된 '우생학'이라는 책자는 '폐결핵으로 죽는 것은 유전이며, 폐결핵은 저항력이 약한 사람

의 자연도태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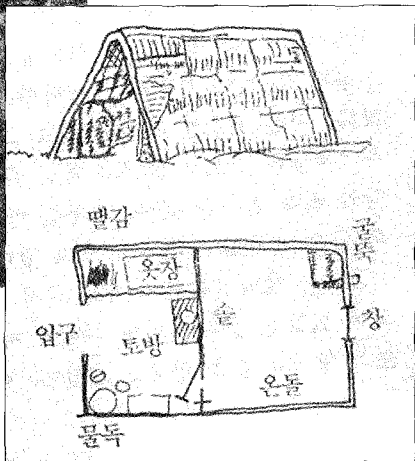
이 책의 한글 번역본(1956년) 서문에서 역자 김남호 박사는 '청년남녀는 (이 책을) 자기의 우수한 종자를 자손에게 유전시키기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큰 참고'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우생학적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작용하였던 20세기 중반기까지 결핵환자는 '폐병환자 피하듯 한다'는 속담에서도

막대한 노동력과 전투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총독부는 결핵예방협회를 조직하고 전국 각지에 결핵요양소를 증설하였으며 한편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 경성부 변두리의 토막(사진은 구한말의 것)  
 ▼ 토막의 외형과 내부구조(토막민의 생활 위생)



알 수 있듯이 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공생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 3. 치료

20세기 중반 스트렙토마이신, 이소니아지드, 파스 등의 화학요법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서양의학의 결핵 치료법은 신선한 공기와 정신안정, 충분한 영양, 충분한 일광 등 소위 자연요법을 위주로 한 요양소요법이 권장되었으며 적극적 치료법으로는 인공기흉을 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때는 칼슘 주사법이라는 것도 사용되었다. 일제시대 동서의학논쟁

으로 유명한 조현영은 1934년 조선일보에 실은 <동서의학 비교비판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해부학의 보고에 의하면 인체 내에 결핵균을 정복한 흔적을 가진 것이 80% 이상이라고 하며, 그 국소는 결핵균을 칼슘으로 에워싸고 있다고 해서 결핵병 환자에게 칼슘 주사를 한다.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관찰할 때는 크게 맞지 않는 일이니...” 하여 당시에 칼슘주사법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일본동경제대 하세가와(長谷川秀治)교수가 개발한 화학요법제 세파관친이 한동안 신약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폐병이 여름에 악화하는 것, 청년기에 더 위험한 것, 오후에 더한 것, 흥분하면 더한 것, 과음, 과색(過色), 과로, 분노, 번뇌를 장기간 계속하여 고도의 체온이 지속한 때 폐병이 발작 또

는 악화하는 것이 모두 폐병의 원인이 음허화동(陰虛火動)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비록 단편적 사실이기는 하나 갈습주사법과 당시 한의학의 결핵병인론에서 양대 의학의 질병관의 차이를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다.

해방 이후 도입된 화학요법제는 결핵의 치료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으며, 외과적 수술에도 큰 진보가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 중 연합군 병원선에서

배운 폐절제술은 이후 우리나라 흉부외과학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의사에 의한 최초의 결핵수술은 1947년 11월 여자의과대학 김준엽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7년 11월 15일과 16일자 한성일보는 김 교수가 독일유학시대의 경험과 맹장수술의 원리를 응용하여 이복주라는 환자의 폐 우측하엽의 2/3를 1시간 여에 걸쳐 절개 수

술하는 데 성공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보도하고 있다.

#### 4. 요약

식민지하에서의 비참한 산업화와 함께 창궐하기 시작하여 결핵은 새로운 화학요법제의 도입과 외과적 수술의 발달, 전국적인 결핵예방사업과 보건소사업, 학교 및 사업장의 집단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등의 결과로 95년 현재 유병률이 1%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생활환경과 노동조건 및 영양상태의 개선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AIDS의 확산과 함께 폐결핵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 등

이른바 '근대병'의 상징이 된 결핵은 새로운 화학요법제의 도입, 외과적 수술의 발달, 결핵 예방사업과 보건소사업, 집단검진을 통한 조기발견등의 결과로 현재 유병률이 1%에 이를 정도로 감소하였다

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AIDS가 번창한다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양상으로 결핵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IMF사태로 인한 노숙자들 사이에 결핵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던 경험은 결핵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에 적합한 사회상이 제공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질병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卍